

고양시, e스포츠·게임 키운다… 5개년 로드맵 마련 착수

8개월간 8000만원 투입해 연구 경기장 조성 건립 전제는 아나 재정 부담·인프라 비교 후 결정

고양시가 e스포츠 경기장 조성 여부와 게임산업 육성 방안을 함께 담은 5개년 전략마련에 나선다. 시설 건립을 앞세우기보다 지역 수요와 사업성을 검증한 뒤 기업·구단·인재·콘텐츠를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고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비 5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투입해 '고양시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연구에 착수해 약 8개월간 진행하며 내년 상반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고양형 e스포츠·게임산업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2026년도 정부예산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역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 정책연구비가 반영되면서



민경선 고양시장.

추진됐다. 당초 전용 연습센터와 소규모 경기장 설치 타당성 검토가 목적이었지만 고양시는 연구 범위를 e스포츠와 게임산업 전반의 중장기 육성 전략으로 확대했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고양시의 산업기반과 입지 및 인프라를 진단한다. 시민과 청소년은 물론 기업과 구단의 의견도 수렴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장 조성은 건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용 수요와 조성·운영비용을 비롯해 적정 규모와 입지 및 운영 방식과 중장기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기존 공공시설 활용과 소규모 경기장 및 전용 연습공간 조성 그리고 민간시설 연계 등 대안도 비교해 향후 시설 조성 여부를 결정할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기업·구단 유치

와 국내외 e스포츠 대회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킨텍스와 2028년 개관 예정인 연면적 5, 198㎡ 규모의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활용해 e스포츠 대회와 콘텐츠 제작·전시·체험 및 기업지원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도 살핀다.

연구 결과에는 산업육성 비전과 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전략과 연차별 실행 계획을 담는다. 사업별 추진주체와 예산 및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문체부·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와 민간 기업·구단의 협력 및 민간재원 활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e스포츠는 경기를 넘어 게임과 콘텐츠, 미디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여건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고양시에 적합한 e스포츠·게임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metroseoul.co.kr



경북도, '문화의 다보스'로 경주 육성

세계경주포럼 개막 전 '비전선언식' APEC 성과, 문화분야 국제협력 연결

경북도는 7일 경주 라한호텔에서 '2026 세계경주포럼 비전선언식'을 열고 경주를 세계 문화의례를 논의하는 '문화의 다보스'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한다.

비전선언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경북도·경주시·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하는 '2026 세계경주포럼'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다. 경북도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를 문화 분야 국제협력으로 이어가고 경주를 글로벌 문화·지식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비전선언에는 ▲세계 문화 의제가 축적되는 지식·정책 플랫폼 육성 ▲대한민국 대표 문화포럼 위상 확립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와 유산의 문화 분야 국제협력 계승 ▲경북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K-컬처·K-헤리티지 세계 확

산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와 협력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운영체계 구축 등 '경주 아젠다'의 방향을 담는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남영 경주시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김석기 국회의원 등 문화·학계·산업계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다.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은 포럼의 의미와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역사문화도시 경주, 왜 다보스가 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이어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을 좌장으로 유홍준 관장, 유철균 원장,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함성득 경기대 부총장, 천경진 제주포럼 사무국장이 세계경주포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세계경주포럼은 8일부터 9일까지 경주주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리며 'AI와 전통의 융합', '경북 문화자산의 현대화', '한류와 문화창의산업'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운영한다.

/경주(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남도, 마린나선박 정비사 교육생 모집

해양레저관광 전문 인력 양성사업

경남도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산업에 필요한 현장 인력을 키우기 위해 '경남 해양레저관광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시작하고, 마린나선박 정비사 국가자격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 과정은 '선외기 정비사' 과정과 '선내기 정비사' 과정으로 나뉜다. 교육은 통영해양스포츠센터에서 진행하며 통영시요트협회와 경기해양인력양성센터가 주관한다.

모집 인원은 과정별 16명씩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선외기 정비사 과정은 10월 12일, 선내기 정비사 과정은 11월 12일까지 통영요트학교 누리집에서 신

청할 수 있다. 경남도민에게는 교육비 50% 할인 혜택을 준다.

경남도에 따르면 남해안은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설 운영과 관리를 맡을 전문 인력 교육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김상원 도관광개발국장은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인프라가 확대되는 만큼 이를 운영하고 성장시킬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남이 남부권 해양레저관광 전문 인력 양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거점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2026 포항 지구촌 엑스포' 현장 모습

15개국 참여 '포항 지구촌 엑스포' 성료

각국 문화 체험·소통 중심 진행

포항시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 장미원 일원에서 열린 '2026 포항 지구촌 엑스포'를 시민과 외국인 주민, 관광객의 참여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PLAY THE WORLD, CONNECT POHANG(세상을 연주하며, 포항을 연결하다)'을 슬로건으로 열린 행사에는 외

국인 주민 커뮤니티가 참여한 15개국 세계문화부스와 세계 베이커리존이 마련됐다. 내·외국인 참가자가 한 팀을 이뤄 겨루는 글로벌 대항전도 진행됐다.

행사장 입구에는 공항 출구장을 연상시키는 공간을 설치하고 방문객에게 여권 모양의 행사 안내서를 제공했다. 방문객들은 안내서를 들고 각국 문화부스를 둘러보고 대형 지구본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세계여행을 주제로 한 축제를 즐겼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18곳 경영실적 평가

신용보증재단, 금융안전망 역할 여성정책개발원, 신규사업 발굴

경북도가 18개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경북연구원장도 기관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올랐으며 평가 결과는 재정지원과 기관장 연임 심사 등에 반영된다.

경북도는 6일 '2026년 공공기관과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18개 기관의 경영성과와 운영 수준을 살폈다.

S등급을 받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역

대 최대 규모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단은 올해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대통령표창도 수상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아동정책과 저출생 극복 및 일·생활 균형 지원 등도 정 현안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확장해 여성·가족친화적 고용환경을 넓힌 성과도 인정받았다.

A+등급에는 경북연구원과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및 경북테크노파크가 이름을 올렸다. 경북연구원은 AX센터를 신설해 인공지능 기반 정책연구를 확대하고 시군 현장과 연계한 연구체계를 구축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김준한 기자

지역 이모저모

사천시

폐기물처리업체 특별점검

사천시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사업장 내 폐기물 방치와 빈 공장·임야 등의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2026년 하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25개소와 빈 공장, 임야 등이다.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하용 보관량 초과, 허가 부지 외 보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가입 여부와 현장 정보 전송기기 설치·전송 여부도 확인한다. 빈 공장과 임야에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진도군

9일부터 보배섬 문화예술제

'2026 진도군 보배섬 문화예술제'가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도 칠마광장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문화예술제는 진도가 보유한 다양한 민속예술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로, ▲무형유산 공개행사 ▲K-민속문화야행 ▲진도 실버가요제 ▲진도 북 페스티벌 ▲진도 보배섬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진도(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인천관광공사

강화군 백패킹 페스티벌 갯섬

강화군과 인천관광공사는 다가오는 가을 시즌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일원에서 아웃도어 축제 '2026 강화군 백패킹 페스티벌 갯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그동안 당일 방문 위주였던 강화도 관광을 '자연 속에서 온전히 머무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하고자 기획됐다. 필수 장비만 배낭에 짊어지고 자연 속을 걷는 '백패킹'은 최근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아웃도어 여가를 즐기려는 웰니스 여행 트렌드로 급부상하며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해명산 능선 트레킹과 갯벌 러닝을 결합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부산시설공단

윤산터널, AI 기반 안전관리

부산시설공단은 윤산터널에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능형 안전관리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터널 안 돌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사고 예방과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스템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총 27억원을 투입해 45개월간 민간 전문 기업과 대학 연구진이 함께 개발했다. AI와 CCTV, 레이더를 연계해 정지 차량과 낙하물, 역주행 차량, 보행자 등 다양한 상황을 감지하도록 설계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